

한국종중의 진로

(주장 요약)

한국의 종중은 국가를 초월한 민족의 근간이고 민족이 바탕이 되어 구성된 존재가 오직 국가뿐인데도 국가가 종중의 상위에서 심판하고 종중은 국가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은 종중이 그 자율성을 상실한 약체가 된 때문이다.

종중의 약점역시 근원이 혈연으로 뭉쳤다고 하면서도 일치단결할 수 없는 것은 만성자폐증 때문이다.

이 폐쇄적 사고는 일제강점기에서 남긴 폐단이며 무지렁이처럼 변모한 타성도 그때부터 비롯되었으며. 장차 종중의 주인인 청장년층까지 외면하므로서 새로운 기풍마저 상실한 때문이다.

더 이상 방관한다면, 한국민족의 근간이요 중추신경인 한국종중은 없어지는 것이 자명하고 민족의 장래는 없다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민족의 신경조직이 무너지면 세계화를 지향하는 가장 유리한 경쟁 요소도 잃게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보나마나 우리 후손들은 모래알 처럼 뿔뿔히 흩어지고 사라질 운명만 짐지워지게 될 것이다.

항차, 현재의 이 나라가 불행하게 망할 경우가 오더라도 다시 소생 할 수 있는 힘은 반만년 이어 온 우리 한 민족의 숨은 저력이며, 민족의 조직체인 종중에서 다시 소생 할 수 있는 힘이 돌아 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1. 한국 종중의 공통된 고민은 종재소송의 만연이다.

연안이씨만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한국의 모든 종중과 각 대소 문중에는 토지분쟁으로 부터 헤어날 수 못하고 있으며 오늘의 한국종중이란 조직은 사실상 거의 와해된 구태조직이다.

무너져버린 황폐한 성벽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굼벵이들 처럼 꿈틀거리는 생물체가 살고 있으니 그것은 종중토지를 갉아먹는 해충들이다.

이들 조직 중에 일부는 거의 이익을 같이하는 자들로 뭉친 패거리가 사실상

의 종중을 가장하여 할 뿐 이고 소위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갖는 기본 성격과는 달리 풍비박산이 된 상태이다. 그중 이익을 전제로 한 일부 내부조직만은 여전히 활개를 치며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종중의 재산이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중재산이 돈이 되고 치부의 열쇠가 되는 까닭은 법적인 여러 가지 취약성 때문이기도 하다

2.원인에 대한 분석적 고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는 동안 가장 민족핵심인 종중조직이 일제의 집요한 탄압에 의하여 거의 궤멸지경에 이르고 보니 오늘의 취약한 몰골로 변모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족이라는 강력한 성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천년 역사를 이어 오면서도 이민족의 침략에서도 끈끈하게 지켜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일제는 이러한 민족의 생리를 간파하고 민족의 기초요 핵심적인 신경인 종중을 와해하기 위하여 종중재산에 대해 권리를 먼저 토지소유를 금해, 개인에게 이를 주었기 때문에 종중 재산은 풍비박산이 된 것이며, 그 모진 법은 아직도 100년이 넘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토지사기단들이 눈독을 들이고 종중조직에 뿌리 없이 젖어든 "새삼"처럼 기생하면서 종중재산 뜯어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일제당시의 법을 그대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 법 아래에서 법률체계가 일제당시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대법원판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종중법은 일제강점기법 그대로 남았다.

종중을 유교적 조직체로 보는 기독교적이나 불교적이나 종래여성중심적 편견으로서는 무한한 오관이 생산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나 불교는 종래 유교적 정치지배하에서 박해를 받아온 까닭으로 반발과 적대감을 갖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다가 종중이라는 존재가 유교적인 잔유물인것처럼 오해하는 과정에서도 편견을 갖게 된다는 점에 제반 판단의 기준이 허물어 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종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힌트를 둔다면 종중은 이 나라에 유교의 가르침이 오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그리고 지역곳곳에 종족을 중심으로 한 결집체가 있었으며 이 결집조직은 서로 혼인을 통하여 이어지고 국난을 만나서도 단결과 우호를 통하여 강력한 민족을 형성하는데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부연하면 종중의 생동적인 일면은 이 한반도와 만주등지에 분포하였던 민족은 물론이고 중앙아세아와 중국대륙에서도 우수한 종족끼리 만 우성결혼을 통하여 다져온 민족으로 점차 단일화된 문화를 독자적으로 형성하여 왔고 전통과 관행으로 우수한 종족을 유지 발전시켜온 것도 입증된다. 이러한 증좌는 우리 역사와 오늘에 있어 당당한 걸음으로 세계를 누비는 능력 있는 후손들의 역할이 만만치 않고 앞으로 더욱 희망적인 서광이 비치는 것까지 들지 않더라도 오직 이모든 사실들은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한국종중의 실체는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민족 신경조직인 까닭에 역대 왕조를 이어 오는 동안에 종교적인 형식을 빌리긴 하였지만 엄연히 그 본질 만은 변하지 않은 민족의 바탕인 것이다.

4. 한국종중만의 특성

이러한 점에서 종중을 단지 유교적 바탕이라는 선입관은 버려야 할 것이며 더욱이 종중이라는 조직체는 국가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인 민족의 원심력이며 그 중추에 있다는 것이 다른 외래 종교들과도 다른 점이며 사실상 종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 상의의 개념이다.

외래종교 가운데 민족을 분해하려는데 작용하는 것도 있고, 대개의 종교역시 결코 민족 단결을 도모하는데 무관심하다. 그러나 종중은 피와 피로서 응집된 조직이므로 민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결의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랜 역사의 바탕에서 자생적 기능이 어느덧 고도화된 조직력으로 응집된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외래종교들 중 일부는 민족해체론까지 앞장서는 종교도 있어서 종중의 판결에도 보이지 않는 불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계로 국가 판결이나 대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고찰 할 부분이 있다.

특히 일본계 불교나 종교가 아직도 그러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족보상의 종중원의 자격은 긍정적인 판단이지만 종중원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단순히 성을 같이하는 혈통만을 중요시할 경우가 있고 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비중은 조상에 대한 정신적 행동적 의무이행과 종중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에 참여도를 각인할 필요가 있고 의무 없는 권리는 명분조차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종중원의 자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조상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향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친족과의 유대정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종원으로서의 충실한 권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종래의 우리나라 관행과 도덕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5.종중에 대한 판결 성향도 일제강점기판례를 기준한 것

지금까지 종중에 대한 판결 성향이 일제강점기하의 종중 탄압차원에서 그 선례를 추종한 것이 많았으며 해방이후에도 이러한 판결이 많이 나오다가 민주화의 바람이 분 이후로는 종중원의 자격기준을 평등하게 보려는 차원에서 판단하는 경향으로 변모하는데 이는 종중이 다소 혈통이라는 것과 혈통을 통하여 그 위계를 정한다는 점, 그리고 봉건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조직인 만큼 반드시 이 특색을 살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조상재사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를 종원의 대표나 이사로 한다든지 일부 종원의 편중된 의견이 종원전체의 의견이 된다든지하는 불합리한 결과는 종원의 단결을 해치는 요인이며 종중을 파괴하려는 관료적이고 일제강점기 식의 종중탄압의 잔재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종중육성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가 아쉬운 때이며 아울러 종중은 스스로 보존을 위한 자성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호적법폐지가 암시하는 바는 종중이 법적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스스로 혈통수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족보 등을 통하여 더욱 강인한 조직으로 이끌어나갈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나라의 종중은 겨우 100년도 안되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간 수천년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피고 또 지고 하는 사이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종중이며 종중은 국가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국가를 포용하는 정도를 넘어 서기도한다. 대한민국을 떠난 타국에서도 한민족의 각색성 종중은 존재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부족과 부족이 혼인과 관행으로 단결하고 이로서 이 나라를 지켜온 정신으로 무장된 단체이며 이젠 우리 한민족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KNOW-HOW이다.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일천한 국가의 역량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간섭하려고 하는 태도는 용서 할 수없는 작태로서 종중에 대한 인식부족과 종중자체가 무기력하고 자성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긍심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다

종중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마다 앞장서 지켜온 중심이며 이 나라 이민족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정신적 중추이다.

나라의 어려움에 경제적인 기여는 말 할 것 없거니와 막강한 정신력과 인력을 투입하여 흔히 말하는 의병과 독립군이 종중으로부터 배출되었으며 종중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일사불란하게 적을 방어 하는데 큰 공로를 이루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당하여 스스로 목숨을 잃어온 사람이 특히 이 종중이라는 결속 체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 조직체인 그 아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제가 특별히 종중탄압을 노리고 법률을 만들어 서서히 종중 죽이기를 한것 역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정신의 핵심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모책이라고 보아야 할진데 아직도 일제가 물러간 마당에도 그때 그 법으로 종중을 탄압하려는 법이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민족과 국가를 지탱하여온 아 종중에 대하여 자기들 기준에 의하여 마음대로 후비고 지지고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종중은 대한민국의 역사 이전 수천 년 이 전 부터 존재 했고 대한 민국 보다 더 위대한 국가를 이루며 그 중심에 있었고 수없이 그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도 종중의 역할은 막중하고 종중은 새 왕조에 서도 오로지 핵심에 있어 왔던 중심이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저력은 오로지 종중이라는 민족의 응집된 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 질 수없는 중요한 것인데도 필요할 때는 앞장세우고 필요 없으면 푸대접하는 이 몰골은 종중이 민족의 핵심체이자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망각한 처사이다.

지금의 이 나라 국가의 판결례나 종중재산이 대개는 농토를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종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은 종중을 국가 단체의 부속품으로 보려는 의도로 보이는 탓일 것이다.

종중이란 존재는 국가 이상의 위에 존재하는 조직이며 국가가 위태롭고 만일 국가가 망한다하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력의 소유자이자 민족의; 구

심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종종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은인자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 보호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종종은 자멸하는 결과 밖에 더 나올 것이 없다는 결론이 불을 보든 명료하다.

흔히 종종이니 민족이니 하는 말을 하면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수작이라는 방식으로 평가절하 하려는 젊은이들의 작태가 만연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많다.

6. 광복의 일념으로 종종원이 대 각성 할 때가 온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선호하는 것들중 길거리에 점을 치는 것이나, 골동품을 수집하거나, 풍수학을 한다. 면서 산천을 찾아다니는 돈 벌기와 행운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것역시 고리타분한 전통이며 문화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허황한 이익추구등 단 꼴이 붙어 있으니 몰려다니면서 붙어 있는 과리 때 현상에 지나지 못하니 이와 같은 이익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뿌리와 지금까지 우성적으로 지켜오던 자손의 혈통과 향배를 도외시하는 것이니 이것 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솔직히 돈이 안되니 생각이 없다는 조상과 뿌리가 불확실한 근성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태도라고 본다.

우리가 종종을 지키려는 저의가 한낱 종종재산에 연연하는데 있지 않다고 보며 다만 그를 구심점으로 한 조상의 정신을 따라 단결하므로 서 더욱 더 강력한 힘을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오늘의 연안이씨 각지파종중들이 심한 감기를 앓고 있는 것은 모두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잃고 있는 까닭이라고 본다.

스스로 힘을 길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출 수 있다는 것은 곧 종원들 전체가 종종일 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범접할 수 없는 무게를 잡아야 하고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향차 토지사기단들의 범접이 가능할 수 없게 말이다.

특히 젊은 종원들의 의식이 깨이기를 바란다.

늙은이들에게 미루지 말아 달라.

종중 몰락은 곧 그 씨족의 몰락을 의미한다. 폭풍에 휩쓸려 파손 직전의 배를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만 맡겨 두는 상태라면 불일은 다 몬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난파직전에 힘을 모

아 타고 있는 배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 아니겠느냐를 판단 할 때가 곧 지금 이라고 생각한다.

7.마무리

종중이 국가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자율성 상실 때문이다
종중의 판단은 늙은이들의 전유가 아니다. 지금 세대의 늙은 이들의 의식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시대 교육의 틀속에 묶여 있는 세대이다.

늙은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판단 할 능력이 없으며 아직도 의리
에 얽매여 판단을 흐리는 경우도 없지 않는 듯싶다.

자신의 몰락을 기다리는 자는 없을 것이다.

물론 장차 발전을 위해 희망과 기회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다.따라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큰 발을 내 디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기회를 놓지거나 희망앞에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 현명
하신 조상이 남겨주신 문화와전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이
일치단결할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인 종중에대한 향념을 저바릴 수는 더욱 없
을 것이다.

종중을 일으키는 일은 곧 민족을 재생시키는 일이며 자손만대를 위하여 필
수적인 작업이다

좋은 조상을 둔 종중일수록 그 응집력은 강할 것으로 본다.

훌륭한 조상을 모신 긍지 높은 연안이씨 종중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는 종중이 되기를 바라면서 종중의 단결을 해치는 분자들의 숙청에
모두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 종중은 자존심 높은 양반이 만들고, 자존 잃은 양반이 망쳐 놓았다.

2014. 05,15

2244 이관희 (연안이씨)